

문화특가

김제시, 지역업체지원 상황보고회

김제시는 지난 15일 2층 상황실에서 이승복 부시장 주재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요 사업부서장과 실무담당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3월 2일 실시한 지역 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회의 이후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보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종합건설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관내 업체를 선정토록 적극 유도 등 다양한 지원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또한 김제시 우수기업 생산제품 안내 책자를 제작 건설업체에 배포하여 지역의 물품 및 자재의 이용을 협조 요청하였고 기술개발 제품연환 등을 수시로 안내하기로 하였다.

김제시 관계자는 작년 대비 관내 하도급율은 19%로 상승하였고 지역 업체 수 주율이 공사·용역 1.5%, 물품 0.4% 소폭 상승하였으나 기술력 차이, 관내 생산품이 없는 경우 등이 존재하여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마실축제 성공개최 준비마련

부안군은 5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부안군의 거리형 축제인 제4회 부안마실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지난 18일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시뮬레이션 예행연습을 18일 진행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축제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이날 부대 민복 마실 퍼레이드와 위도 띠 밧놀이 재현, 결혼식 때 한복입고 대동한 마당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 시뮬레이션 예행연습을 진행하고 문제점 등을 개선했다.

특히 현장 시뮬레이션은 메인무대인 서부터미널과 부안초등학교, 부안 상설시장 주차장, N동협 부안군자부 등 프로그램별 행사장에서 진행했으며 실과 소장과 음·연장, 제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그램별 운영 팀장이 부스 공간 배치 및 운영계획을 총괄 설명, 주민 참여 프로그램 동선 예행연습 등으로 실시했다.

김종규 부안군수는 현장 시뮬레이션에서 각 음·연장 특산물 판매 부스에 지게꾼 배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축제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또 부안군은 안전하고 질서 있는 부안 마실축제 개최를 위한 교통통제 및 주차공간 확보 대책을 수립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6만 군민과 60만 관광객이 하나될 제4회 부안마실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보건소 건강지도자 양성교육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만)는 주민참여형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을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2일동안 성공리에 운영, 42명이 수료하였다.

건강지도자간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지지자로서, 건강생활 실천의 필요성 및 자가 건강관리기술을 전파시키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및 환경 조성 역할을 하는 건강한 지역주민으로 김제시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건강백세체조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건강증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내 몸 바로 알기를 시작으로 "제4회 보건의 날" 슬로건인 "단맛을 즐기세요, 인생이 달콤해집니다."라는 주제 하에 대사중후군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하여 신체활동 증진과 영양관리의 중요성에 관한 이론 및 올바른 걷기 자세를 배우 성산공원 주변 걸기를 직접 체험하는 등 프로그램 구성을 내실있게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98%의 만족도를 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이젠B&H는 파리에서 콜라겐을 추출하기 위해 9천929㎡(3,003평) 규모의 부지에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이미 해외시장 판로까지 확보한 상태이다.

정읍첨단산업단 100억 투자협약

시·이젠B&H, 해파리 이용 콜라겐 대량 추출로 고부가가치 창출 기대

정읍첨단과학산업단지에 투자자 이 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와 첨단방사선연구소 기술이전 기업인 (주)이젠 B&H(이하 이젠B&H)가 100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김제시 시장과 윤병남 이젠B&H대표는 18일 시청 시장실에서 이전기술 개발자인 첨단방사선연구소 임윤목 책임연구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서에 서명했다.

양측에 따르면 이젠B&H는 첨단방사선연구소의 기술을 이전받아 해파리에서 콜라겐을 추출하기 위해 9천929㎡(3,003평)규모의 부지에 총 100억원을 투자하여 유럽의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이고, 이미 해외 시장 판로까지 확보한 상태이다.

이젠B&H가 이전받게 되는 해파리를 이용한 콜라겐 대량 추출법은 기존 육상동물용을 이용한 추출법보다 공정 비용 및 시간을 대폭 단축시킴으로써 효율을 크게 개선한 기법이다.

시와 이젠B&H 측은 "이번 상용화로 수입대체 효과와 원천기술 확보에 따른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해파리에서 추출된 콜라겐은 의약품(생체재료 이식재, 치과 재료 등) 및 보습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에 활용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제시 시장은 "뛰어난 자연환경과 3대 국책연구소가 자리해 있어 천혜의 산업단지로서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는 정읍 첨단과학산업단지에 입주하게 될 이

젠B&H 윤병남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기업의 성공은 곧 우리 정읍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으로 이어지는 만큼 기업 활동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읍첨단방사선연구소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본부 및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와 공동으로 첨단과학산업단지 기업유치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

이번 이젠B&H 외에도 빠르면 5월 중으로 태경중공업의 컨테이너집객기 기술이전 연구소 기업 설립 등 기업 입주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미래비전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정읍시는 18일 미래 100년 발전의 핵심전략인 미래지향적 중장기 비전과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 보고회를 열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김제시 시장을 비롯한 양심목 부시장과 국단소장,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원과 이만재 의원, 전문가, 연구진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읍 미래비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는 지역 현황과 여건 분석, 비전과 발전 방향에 따른 추진전략, 선도 프로젝트 등에 대한 설명과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수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용역을 맡은 현대경제연구원 미래비전을 이끌 시의 비전으로 '동아시아 진출 거점, 행복도시 정읍'을 제시했다.

제시된 비전을 토대로 4가지 발전축을 설정하고 미래첨단과학기술의 선도도시(미래동력축), '동아시아 수출

지향 농축산가공 산업중심(국제성장축) 관광·디자인 융합을 통한 '오색 체험 정읍' 실현(관광개발축) '활력 넘치고 살고 싶은 행복도시 정읍실현(도시개발축)'을 주제로 한 추진전략 방안을 보고했다.

또한 용역기관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도출된 추진 전략에 따라 비전과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열띤 토론을 통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됐다.

주요 의견은 '인구 15만명 회복 목표달성을 위한 인구중대 전략수립' '시 미래비전 추진방향과 맞는 아이 템 발굴'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지역정책 수립' '정읍시내 도심 활성화 전략 제시' '국가예산 확보가능 분야 발굴' 등이다.

시는 이번 보고회를 토대로 지역여건 분석과 추진전략에 대한 수정보완을 거쳐 일지리아, 경제산업, 문화관광, 도시·지역개발의 부문별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이번 행사에 비가 오는 가운데도 부안 기타지역을 포함, 19개 어촌계에서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함께 했다.

부안수협 조합원 한마음 잔치

스포츠파크서 3000여명 참석

부안수협(조합장 김진태) "2016년 부안 수협 조합원 한마음잔치"가 지난 16일 부안스포츠파크 보조경기장에서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하여 관내 기관단체장과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 졌다.

개회사에 앞서 김진태 조합장은 "오늘은 세월호 참사 2주년에 해당되는 날로 세월 호사고 희생자 분들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모두가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김 조합장은 조합원한마음잔치는 그동안 조합 발전을 하려고 노력해주시 조합원들의 노고에 조금

이나마 보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만든 자리라고 말했다.

김 조합장은 또 부안 수협은 전국 92개 수협 중 5위권 안에 들어갈 만큼 성장하였으며, 앞으로 더욱 건실한 경영을 통해 전국 1위 조합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조합원의 복지와 지위향상을 위해 서 항상 모든 임직원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부안 수협은 이번 행사에 비가 오는 가운데도 부안 기타지역을 포함 19개 어촌계에서 참석한 모든 조합원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조합과 조합원이 소통하고 한마음이 되는 뜻 깊은 자리였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모악산축제 종합프로그램 확정

역사·문화·종교 이미지 부각

김제시는 오는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는 제9회 김제모악산축제 종합프로그램을 확정했다.

"모악산, 신비의 길을 걷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모악산 벚꽃잔치에서 김제모악산축제로 명칭을 변경한 만큼 그동안의 벚꽃이머지에서 탈피하여 모악산이 가진 고유한 콘텐츠인 살아있는 역사문화와 다양한 종교 등 관광자원과 모악산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축제로

재미있게 풀어갈 예정이다.

모악산은 어머니의 품처럼 따스함을 간직한 전복을 대표하는 산으로 천사 백년 고찰 금산사에서부터 동학농민운동 기미 3.1 원광민중운동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유구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또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및 신흥민족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살아있는 종교박물관이기도 하다.

이번 김제모악산축제에서는 모악산 곳곳에서 작은 공연들을 개최하여 등

산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전문 숲해설사에게 모악산 이야기를 들어보는 등 축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머니 합창단을 초청하여 어머니산에서 어머니들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전식 김제시장은 "올해 행사는 예년에 비해 많은 차별화가 예상되는 만큼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방문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Gangsanmyeongju) featuring various gift sets and promotional text. The ad includes images of wine bottles and gift boxes, along with text describing the product and its benefits. Key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 ad also lists several gift set options with prices, such as 'GIFT SET 1.0 | 750ml 2ea, 잔 2ea/16%' and 'GIFT SET 2.0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